

## 여대생실업 극복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서(초안)

받는 이들: 서울 지역의 여자 대학교 총학생회/ 북부지역 각 대학 총여학생회/ 전국여학생대표자회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고민하는 모든 자치 모임

보내는 이: 서울북부지역 대학생연합 추진위 준비단(단장 김정선016-880-7626),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901-8361)

### 0.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IMF이후 한국을 뒤덮고 있는 구조조정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실업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차츰 줄어들던 청년실업 폭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15~29세 실업률)은 7.2%입니다. 이는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IMF이후 10%대급 상승하다가 점차 떨어지던 청년실업률이 지난해 6.6%를 기점으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첫인자리를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12개월로 작년 6월보다 1개월 늘어났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대학생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지속적인 저 성장에 기업들이 대규모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링크드인이 최근 233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채용을 시작하지 않는 기업도 34%나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발 인일 중 남성이 69.37%를 차지한데 반해 여성은 30.36%에 불과합니다. 남성 채용률의 반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현실은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7년 여성단체의 헌장에서 말하는 여성들의 당당한 요구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을 성과를 가져왔으나 경제위기를 직면한 여성들의 비정규직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의 심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조각조각 쪼갬도 인종할기 못하는 여성적업의 확대 등의 또 한차례 좌절이 있었습니다.

성차별의 상황속에서 다양한 층의 여성실업자들이 고통을 받았고 대졸신규 여성실업자층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실업문제의 대부분은 인화 의욕된 노동시장에서 대학을 갓 졸업해 알성한 경제활동층 해약할 여대생들이 겪는 실업은 사회적 대한 좌절감을 맛보게 하였고 노동시장의 성차별이 또 하나의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강한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남성의 실업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반면 여성 실업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역할분리의 논리가 박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대생들의 취업문제는 주체가 이 문제를 집단적으로 인식하고 나서지 못함으로써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일은 이제 생활 곧 삶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누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모순에 직면한 우리는 우리 여대생들이 단결된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대졸여성 실업극복의 문제에 대해 꾸준히 제기하고 실천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녀평등의 사회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합시다.

### 0-1.첫회의: 10월 7일 화요일 8시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 1. 의의

- ① 취업시장을 맞이하여 청년실업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가장 큰 성적 사활을 받고 있는 여대생 스스로 취업 문제극복을 위한 문제제기와 실천을 한다.
- ② 대졸여성 실업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실천을 통해 남녀차별적 취업구조를 개선한다.
- ③ 여대생들의 공동연대투쟁을 강화한다.

#### 2. 지금까지의 과정 총회

여대생들이 취업의 과정에서 차별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써 실제 취업에 있어 남성 취업률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주체하고 전국여성노동조합, 노동지기(경희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 총여학생회,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여성실업대책분부가 주관하여 "대졸여성실업 극복을 위한 여대생 취업준비 실태와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극복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997년말 시작된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이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IMF가 지났다는 2000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의 관행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취업률이 남성의 50%정도 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구직활동 과정 중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40%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신체 및 용모제한'에서 성차별을 많이 겪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논의의 대척으로 학교 취업정보실의 기능강화와 '직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을 할 것, 고용시장의 성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채용과정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하였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처벌규정을 강화, 여학생운동 주체는 여대생들이 졸업후에 겪는 성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제안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특별히 여대생 취업에 관련된 흐름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이 사안의 주체가 되어야할 여대생들이 그러한 흐름을 이어받기 위하여 고민과 실천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취업의 문제는 단순히 여대생들에게만 국한되는 사안은 아니라 실업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것에 성차별까지 더하여 같은 대학교육을 받고도 차별을 당하는 2중의 모순에 처해있는 여대생들이 여성실업극복, 또한 여대생실업극복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 3. 제안단위

서울 지역의 여자 대학교 총학생회/ 북부지역 각 대학 총여학생회/함께 하고자 하는 고민하는 모든 자치 모임

### 4. 방법

① 같이 학생회 및 단체의 회의: 빠른 시일내에 만나 실천의 목표 및 내용, 방법들 세부적으로 마련

#### 1) 자료조사

- ① 각 학교 (남녀) 대학생 취업률 및 직종 조사(학교 취업정보실) 통계청에서의 (남녀) 대학생 취업률 및 직종 조사
- ② 취업을 준비하는 여대생의 인터뷰
- ③ '평등의 전화'에 수집된 성차별 사례 조사
- ④ 토론회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토론회 개최

#### 3) 일상적 실천사업

국회 앞이나 여론이 형성되기 쉬운 공간에서 일상적인 실천사업을 진행

#### 4) 성차별 근절을 위한 신고전화 설치

구직과정에서 성차별이 이루어지는 사례 및 기업을 조사하여 노동부나 여성부를 통해 압력을 가한다.

#### 5) 여대생 취업난 극복을 위한 대책 연구, 조사

### 5. 흐름

1시기: 사업의 제안과 주체 마련

(9월 말까지)

2시기: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실천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

(10월 중순)

3시기: 정해진 안을 가지고 다른 단위에 활발히 제안/ 연구사업

(10월 말까지)

4시기: 일상실천 및 연구사업 시작(11월 ~)